

마 이 크 로 에 어 로 봇

꿈을 찾아떠나는 이카루스들의 아름다운 비행

생각보다 조용했다.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공대생 넷이 모여 앉아
 똑딱거리며 비행기를 만들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
 한쪽에서는 수치계산에 여념이 없고, 한쪽에선 시뮬레이션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의 이런 노력은 모두
 책상 위에 놓여진 손바닥만한 비행기 때문이다.
 길이 13.4cm, 무게 60g의 이 비행체에 그들은 꿈과
 미래를 다 걸었다.



마이크로에어로봇4인방, 이들은 모두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선후배 사이이다.(왼쪽에서 세번째가 황희철 대표)

Q ■ 마이크로에어로봇의 비전과 맵파워는 무엇입니까 .

A ■ 저희는 모두 중학교때부터 학교수업을 때먹어지며 모형 비행기를 날리던 비행기 마니아들입니다. 대학도 똑같이 항공우주공학과를 택했고, 대학에 와서도 산자부 등에서 주최하는 로봇항공기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소형 비행체(MAV)개발에 성공하게 되었고 평생의 관심사인 비행기를 통해 무언가를 이뤄 보고싶어 지금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국내 시장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정한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 마이크로에어로봇은 리딩기업 ‘손오공’과 후견인제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두 회사간 경영자문과 기술자문 등 후견제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요 .

A ■ 행사 후부터 지금까지 최신규 대표님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1~2주에 한번씩은 꼭 대표님을 찾아뵙고 기술과 인생에 대한 짧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해서도 올 5월로 목표한 저희 시제품을 상품화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중 손오공의 최대표님은 저희에게 언제나 든든한 후견인입니다.

Q ■ 비행기 제작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황희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비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A ■ 애초 저희는 저희가 목표한 비행기 제작에만 온 힘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적인 아이템이라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죠.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비행체 조립의 특성상 완벽한 설계가 있을 수 없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도 주위에는 조급한 눈과 마음이 짝아 참아줍니다. 저희들에게 비행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비록 남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비현실적이라고도 말했지만 여러 시도를 통해 저희는 가능성을 모두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난다’는 것은 늘 현재 진행형이며 저희는 지금 비행을 준비중입니다.

M A V 란 ?

길이 15cm, 무게 100g 미만의 초소형 비행체를 뜻하는 MAV(Micro Rob of Air Vehicle)는 국안으로 말해서 힘든 지역에서 무인정찰이 가능해 차세대 첨단 군사장비로 각광 받고 있다. 내부에 카메라를 내장하여 지상의 관제탑과 상호 연결해 정보의 전달과 비행이 이뤄진다.